

##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고학년을 중심으로

이주영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Study on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Upper Grade Students

Lee, Joo You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G시와 A시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성별, 학년, 형제 수 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은 사회문화생활 영역은 평균 3.51점, 가정생활 영역은 평균 3.49점, 학교생활 영역은 평균 3.47점, 직업생활 영역은 3.38점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가정, 학교, 사회는 공동으로 양성평등한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초등학생, 양성평등의식, 사회문화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effective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by confirming the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in the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5th and 6th graders attending thre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G and A cities explained the research and collected data using questionnaires from 190 people who wish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 were us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test and ANOVA were used for differences in gender equality awareness according to subjects' sex, grade, and number of sibling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howed an average of 3.47 points out of 4, with an average of 3.51 points in the social and cultural life area, 3.49 points in the home life area, 3.47 points in the school life area, and 3.38 points in the vocation life area. Various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to raise studen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schools, and society should jointly strive to create a gender-equal cultural climate. Future study is need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equality awareness, Social and cultural life, home life, School life, Vocation life

\*Corresponding Author : Lee, Joo Young(jylee@gch.ac.kr)

Received November 22,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December 15,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양성평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남녀평등'과 같은 의미이다.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에서 조건의 평등을 거쳐 결과의 평등으로 변화하였다. 기회의 평등은 여성과 남성에게 개인의 역량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나 오랜 시간 동안 가부장적 사회가 지속되면서 사회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구조 속에서 남녀의 평등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건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강조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선결 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의 평등은 기존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1]. 이런 변화를 통해 양성평등은 남녀의 특성을 인정하며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통해 인권을 실현해 나가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2]. 양성평등과 양성평등의식은 혼용되거나 양성평등의식은 양성평등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남녀의 적절한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태도,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3].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이 고정관념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여자는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반면에 남성은 독립적이고, 자기주장 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간주하였고 이런 사고방식이 확대되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적이며 복종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편견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4]. 이런 잘못된 편견과 성차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기본 설계도의 기능을 지니게 되는데[5], 양성평등 교육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방안에 의해 인식이 강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통해 자아실현하고, 자립적인 생각과 태도, 능력을 배양하고, 타인의 특성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은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다[1]. 그러나 아직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 교육은

남·여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실정이다[6]. 양성평등의식은 성장하면서 심리, 사회, 문화적 환경과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인식이라 볼 수 있다. 일상에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문화 안에서 성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에 맞는 규범과 제도가 정착되었다[7].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의식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양성평등의식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아동은 취학 전까지 가족의 모습이나 언행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성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8],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점차 성 역할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본인의 인식과 행동을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9,10].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초등학생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연구[7]에 의하면 연구의 77%가 교과교육과 범교과 교육으로 나타났다. 교과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거나 삽화 등을 분석한 내용이었으며, 범교과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과 진로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사와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와 양성평등 제도를 분석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양성평등의식 및 태도를 연구한 선행논문은 중·고등학생[11,12]과 대학생[13,14]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수 있었으나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초등학생은 가치관을 정립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남녀 모두가 편견 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양성평등의식 정도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와 A시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학교의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 승인을 얻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설명 후 무기명식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중간수준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각 군에 88명씩, 총 176명이 산출되었다.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회수하였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9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최종 186부를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양성평등의식

본 연구에서는 Kim과 Lee[3]가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단축형의 20문항을 Ha 등[15]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4개의 하위영역과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역문항은 역코딩을 한 후 자료분석을 하였다. Ha 등[15]의 연구에서 검사 전체의 신뢰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2이었다.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에서 설정한 하위영역 4개의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생활 영역: 가정생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 2) 학교생활 영역: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 3) 직업생활 영역: 직업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 4) 사회문화생활 영역: 가정이나 학교, 직업 영역 이외의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 2.4 자료분석 및 검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성별, 학년, 형제 수 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86)

characteristic	category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sex	male	95	51.1
	female	91	48.9
grade	5th	90	48.4
	6th	96	51.6
number of siblings (except myself)	0	20	10.8
	1	114	61.3
	2	45	24.2
	3 or more	7	3.8
religion	Buddhism	14	7.5
	Christian	46	24.7
	Catholic	16	8.6
	no religion	110	59.1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 186명의 초등학생 중 5학년이 90명(48.4%), 6학년이 96명(51.6%)이며, 성별은 남학생이 95명(51.1%), 여학생이 91명(48.9%)로 나타났다. 본인을 제외한 형제의 수는 1명이 114명(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45명(24.2%), 외동이 20명(10.8%), 3명 이상이 7명(3.8%)으로 나타났다. 대상 학생들의 종교는 무교가 110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46명, 24.7%), 천주교(16명, 8.6%), 불교(14명, 7.5%)의 순이었다.

### 3.2 양성평등의식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양성평등의식의 합은 16점 만점에 13.86±1.33점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의식의 하부요인은 각 4점 만점이며 가정생활 양성평등은 3.49±.45점, 학교생활 양성평등은 3.47±.42점, 직업생활 양성평등은 3.38±.44, 사회문화생활 양성평등은 3.51±.34점으로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Averag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N=186)**

Sub-area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mean	SD	range
home life area	3.49	0.45	1-4
school life area	3.47	0.42	1-4
vocational life area	3.38	0.44	1-4
social-cultural life area	3.51	0.34	1-4
Sum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13.86	1.33	4-16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가정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t=-5.127, p<.001$ ), 성별( $t=-5.127, p<.001$ )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나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교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t=-2.689, p=0.008$ ), 성별( $t=-3.900, p<.001$ )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나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직업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t=-4.091, p<.001$ ),

성별( $t=-4.366, p<.001$ ), 종교( $F=3.775, p=.011$ )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문화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t=-2.825, p=.005$ ), 성별( $t=-2.379, p=.018$ )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나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생활 양성평등 평균 3.51점, 가정생활 양성평등은 평균 3.49점, 학교생활 양성평등 평균 3.47점, 직업생활 양성평등 3.3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양성평등의식 평균 2.53점, 사회문화생활 양성평등 평균 2.47점, 가정생활 양성평등은 평균 2.54점, 학교생활 양성평등 평균 2.58점, 직업생활 양성평등 2.48점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6]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연구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강조한 시기가 7차 교과개정 이후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 교육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3.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characteristics	category	home life area		school life area		vocational life area		social-cultural life area	
		M±SD	F/t(p)	M±SD	F/t(p)	M±SD	F/t(p)	M±SD	F/t(p)
sex	male	3.35±.45	-5.127 ( $<.001$ )	3.40±.43	-2.689 (0.008)	3.26±.40	-4.091 ( $<.001$ )	3.45±.32	-2.825 (0.005)
	female	3.64±.39		3.55±.39		3.50±.45		3.58±.34	
grade	5th	3.41±.43	-2.808 (.005)	3.37±.41	-3.900 ( $<.001$ )	3.26±.45	-4.366 ( $<.001$ )	3.46±.33	-2.379 (.018)
	6th	3.58±.45		3.59±.40		3.50±.40		3.57±.33	
	0	3.55±.42		3.51±.28		3.42±.39		3.55±.25	
number of siblings (except myself)	1	3.52±.45	1.592 (.192)	3.48±.421	.079 (.971)	3.39±.44	.347 (.791)	3.54±.36	1.010 (.389)
	2	3.38±.46		3.46±.46		3.33±.49		3.44±.31	
	3 or more	3.65±.44		3.45±.44		3.43±.41		3.50±.37	
religion	Buddhism	3.43±.38	.930 (.427)	3.39±.44	.629 (.597)	3.17±.45	3.775 (.011)	3.47±.35	1.822 (.144)
	Christian	3.48±.47		3.50±.42		3.43±.41		3.47±.26	
	Catholic	3.66±.36		3.57±.34		3.64±.38		3.68±.32	
	no religion	3.49±.46		3.46±.42		3.36±.45		3.51±.36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모두 직업생활 양성평등에서 각각 3.38점, 2.48점으로 총점의 평균보다 낮고,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의식은 학습, 경험, 주변의 태도 등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으로 가정, 학교, 사회문화 영역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의식이 정립되었으나 직업생활영역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책이나 TV 등 매체를 통해 얻은 간접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을[17-19]보면 직업에 대한 삽화에 전문직은 남성이 가사와 간단한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 등에는 여성으로 설정된 부분이 많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면 하부영역 4가지 모두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직업생활 양성평등 영역에서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양성평등은 형제의 수나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남학생보다 4개 영역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양성평등의식 4개의 영역에서 3.50~3.59점의 고른 점수를 보이지만, 남학생의 경우 직업생활 양성평등 영역에서 3.2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선행연구[21]에 의하면 직업생활 영역은 어머니의 학력이나 직업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5학년 학생보다 6학년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하위 4개의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6]에서는 학교생활 영역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른 영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울산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22] 사회문화생활, 가정생활 영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들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5학년과 6학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양성평등의 의식이 정립되어 가는 시기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생의 양성평등교육이 강조된 7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초기에 비해 다양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통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다르며 특히 남학생 경우 여학생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모든 영역에서 낮게 나타나 학교 교육에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이 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남녀 학생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난 직업생활 영역의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년에 따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달랐는데 5학년에 비해 6학년이 높은 양성평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학교를 통한 교육과 학교, 가정, 사회적 경험이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학교와 가정, 사회와 연계된 양성평등 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전개해야 하며, 가정, 학교, 사회는 공동으로 양성평등한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양성평등의식 향상 방법, 접근방법을 연구하여 보다 질 높은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직업생활 영역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나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교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나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직업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성별,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문화생활 양성평등은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제 수나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농복합지역의 학생이 편이 추출되어 모든 지역의 초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거주 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다.
- 둘째,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구하고 그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1999). *(In the 7th curriculum) Search ways to realize gender equality education*.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2] U. R. Bang. (2017).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Career Maturity and Job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 [3] Y. H. Kim. & S. H. Lee. (2002) Validation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The Women's Studies*, .63, 136-156.
- [4] J. I. Do. & K. L. Sung. (2000). *Koreans in the new millennium, Korean society*. Seoul: Nanam Publishing House.
- [5] H. J. Hong. (2002). Identifying Basic Concepts and Dimensions Concerning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Quality Control: Paradigm Shift in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Quality Control(2).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2), 197-226
- [6] K. N. Kim. & H. N. Lee.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1(3), 197-216
- [7] M. Y. No. & Y. S. Park. (2005). A comparative study on sex-consciousness and sexual values between urban and rural elementary schooler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6, 17-34.
- [8] J. H. Koo. (2009). The Grade and Gender Difference in Sex Role Stereotyp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studies education*, 48(3), 35-46.
- [9] Y. H. Park. (2008). *The Effect of Education from the Gender Equality on the Children's Gender - Equality Consciousness in Practical Arts Educ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angwon-Do.
- [10] Y. W. Kim. (2017).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students stereotyp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11] J. S. Lee. (2007). *An Analysis on the Gender Equality Percep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yeongsangbuk-do.
- [12] H. Song. (2005). *A Study on Gender-Equity Conscious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Ulsan.
- [13] E. K. Byun. (2019). Factors affect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nursing college femal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1), 661-671  
DOI : 10.35873/ajmahs.2019.9.11.059
- [14] S. H. Park. (2016).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perceptions of marriage in university students - Ba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sang-do reg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207-232.  
DOI : 10.24159/joec.2016.22.6.207
- [15] J. Ha, S. K. Yoo. & S. H. Hong.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nd Childr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4(2), 105-127.
- [16] M. S. Yoo. (2006) Comparative Study of Students and Teacher's Gender Equality Perception in Elementary School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0(1), 1-10.
- [17] I. N. Ok. (2015). Aspects of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ocial Studies Textbook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7(1), 145-182.  
DOI : 10.35557/trce.47.1.201503.006
- [18] G. H. Yoon. (2015). The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xtbooks on Practical Arts Subject in the

Perspectives of Gender Equity and Work-Family Balance: focused on 'My life and Family life' Uni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5), 627-648.

- [19] Y. M. Seong, & J. R. Kim. (2021). An analysis of the 2015 revised elementary 6th grade English textbook dialogues with reference to the gender discrimin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9), 807-825.  
DOI : 10.22251/jlcci.2021.21.19.807
- [20] E. K. Shin. (2010).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career-related variabl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Gyeonggi-do.
- [21] Y. B. Park. (2003). *A Study o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Personality Traits of the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22] K. N. Choi. (2008). *A Study on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Ulsan City: Focusing on the upper grad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lsan University. Ulsan

이 주 영(Lee, Joo Young)

[정회원]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저출산, 간호교육
- E-Mail : jylee@gch.ac.kr